

브리지스톤, 11년 연속 타이어 업계 1위 수성

- '타이어 비즈니스(Tire Business)', 2018년 총매출액 기준 세계 타이어 기업 순위 발표
- 브리지스톤, 총매출액 249억 8천 2백만 달러로 1위 자리 지켜
- "최고의 품질로 사회에 공헌한다"는 기업이념 구현을 위해 첨단 기술개발에 지속적 투자

세계 1위 타이어 기업 브리지스톤이 11년 연속 타이어 업계 정상 자리를 지켰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타이어 전문지 '타이어 비즈니스(Tire Business)' 9월호에 따르면, 브리지스톤은 2018년 전세계 타이어 매출액 249억 8천 2백만 달러를 기록해 총매출액 기준 타이어 기업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브리지스톤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연속으로 타이어 기업 1위 자리를 지켰다.

브리지스톤은 전세계에서 249억 8천 2백만 달러의 타이어 매출을 달성해 업계 1위의 자리를 지켰다. 그 뒤로 미쉐린이 232억 7천 5백만 달러, 굿이어가 143억 9천 2백만 달러, 콘티넨탈이 117억 5천 7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톱 5 타이어 기업들의 순위는 작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에서도 브리지스톤은 35억 7천 21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미쉐린(32억 7천 240만 달러), 콘티넨탈(22억 4천 60만 달러), 피렐리(12억 9천 410만 달러), 굿이어(12억 7천 4백만 달러)가 브리지스톤을 추격했다.

브리지스톤은 "최고의 품질로 사회에 공헌한다"는 기업이념 구현을 위해 타이어 개발, 제조에서부터 서비스 솔루션까지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추구해오고 있다.

'타이어 비즈니스(Tire Business)'지는 매년 전세계 타이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출액을 집계해 1위부터 75위까지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순위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중간재, 비타이어 제품 혹은 서비스 부문 등을 제외한 완성품 타이어 부문에서만 집계된다.

###